“문화자산 관리체계 일원화…보존·활용 활성화”

통합문화재단, 문화자산 깨우고 빛내라

〈하〉문화자산 활용 해법

지역 문화재단이 보유한 미술품을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활용하려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개방형 수장고를 조성하거나 평소 전시장에 나오지 못했던 소장품을 선보이는 등 공공 문화자산의 활용 범위를 넓히고 있는 것이다.



국립목포병원 로비(왼쪽)와 전남도립도서관 4층 문화마루에 임대 전시된 통합문화재단 소장품들.



인천 미술은행 개방형 수장고
창원 소장품 특별전 개최 주목
광주·전남 서로 다른 관리규정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 선행
전문가들 “전담인력·보존공간, 중장기 운영체계 등 마련해야”

인천문화재단은 지난 2월 경인교육대학교와 협력해 대학 도서관 4층에 약 230㎡ 규모의 ‘인천미술은행 개방형 수장고’를 조성했다.

인천미술은행 사업을 통해 확보한 작품을 보관하면서 시민들이 직접 살펴볼 수 있도록 마련한 공간이다. 작품 보존과 공개 기능을 결합해 수장고를 시민과 문화자산을 연결하는 공간으로 활용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창원문화재단도 지난 7월 성산아트홀에서 소장품 특별전 ‘소장의 시간’을 개최했다. 김기창과 김창열, 정상화, 문신 등 한국 근현대미술 주요 작가들의 작품을 선보이며 그동안 공개 기회가 적었던 소장품을 시민들에게 소개했다.

특히 크기와 재질, 보존상의 이유 등으로 외부 대여가 어려웠던 작품을 전시장으로 옮겨 공개했다. 작품 가치를 시민과 공유하는 활용 방식이다.

반면 광주와 전남은 재단 통합을 앞두고 소장품 관리 체계의 기본적인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광주문화재단은 기증과 사업을 통해 확보한 작품 등을, 전남문화재단은 예술은행 사업을 통해 구입한 작품을 각각 관리하고 있다.

광주는 기존 공간에 작품을 재배치하고, 전남은 외부 기관에 작품을 임대하는 방식으로 활용하고 있지만 통합 이후에는 서로 다른 관리 기준을 조정해야 한다. 실제 소장품 증감 현황과 증감 내역 등에 대해 전남문화재단은 남도예술은행 운영 작품 관리 규정에 따르고, 광주문화재단은 재무회계 규정 내 제6장 재산(물품) 관리에 따르고 있다.

전문가들은 양 재단의 정보를 일원화하는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보존, 활용 정책을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운영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조민영 은암미술관 학예실장은 “양 재단이 보유한 작품의 취득 경위와 소유권, 보존 상태, 설치 장소, 대여 이력 등을 확인하는 전수조사를 통해 작품별 정보를 일원화하는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선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작품 특성에 따른 보존 환경이 중요한 만큼 재질에 따라 섬세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미술관과의 협력을 통한 공간 마련이나 공공기관 대여, 순회전 확대 등 시민과 작품을 공유하고, 문화자산의 보존과 활용 정책을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운영 체계 마련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전문인력과 예산, 명확한 관리 책임 체계에 대한 개선도 요구됐다.

이선 이강하미술관 학예실장은 “최근 국공립 미술관에서도 개방형 수장고와 아카이브 구축 등 소장품의 보존을 넘어 시민들에게 어떻게 공개하고 활용할 것인지가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며 “공공재원으로 관리되는 문화자산인 만큼 단순한 전시와 보관을 넘어 지역 미술사에서 갖는 의미와 가치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작품의 보관과 관리는 저작권과 소유권, 진위 여부 등 법적·전문적 문제까지 다뤄야 하는 영역”이라며 “소장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는 전문인력과 전담 조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기적인 전수조사를 통해 작품의 분실이나 훼손 여부를 확인하고, 작품별 규격과 상태, 관리 이력 등을 정확하게 기록해야 한다. 내부 전문인력 확보가 어렵다면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통해서라도 지속적인 점검과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며 “두 재단의 소장품이 하나로 합쳐지는 만큼 기존 작품의 관리카드 작성 방식, 향후 관리와 활용 방안까지 전반적인 운영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오복 기자

광주아트패스 가입 4만 돌파…관광 플랫폼 자리매김

동구문화재단, 전시·공연 정보 제공 입장권 할인 등 혜택

광주동구문화관광재단이 운영하는 스마트 관광 통합 플랫폼 ‘광주아트패스’가 가입자 4만명을 돌파했다.

동구문화재단은 광주아트패스 회원 4만명 돌파를 기념해 지난 7일 광주 동구 금남로 일원에서 열린 ‘차 없는 거리-걷자잉’ 행사장에서 시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감사 이벤트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사진〉



광주아트패스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대표 스마트 관광 통합 플랫폼으로, 재단으로 사업이 이관된 이후 지난 11개월간 안정적인 서비스 운영과 기능 개선, 지역 관광 콘텐츠 확충에 주력해 왔다.

플랫폼에서는 광주지역 주요 미술관과 박물관, 공연장의 전시·공연 정보를 비롯해 모바일 QR 코드를 활용한 디지털 입장권 할인, 음식점·카페 할인, 원데이 클래스 체험, 1박2일 숙박 결합 패키지 등 다양한 관광 혜택을 통합 제공하고 있다.

특히 원도심 골목상권과 지역 문화예술 거점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관광객의 지역 내 체류 시간을 늘리고, 지역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와 골목상권 활성화를 도모하는 등 지역 관광 소비를 촉진하는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4만번째의 가입자인 최승아씨는 “광주아트패스 회원 4만명 돌파 기념 이벤트에 선정돼 무척 기쁘고 뜻깊다”며 “모바일 앱을 통해 광주의 다양한 관광지와 문화예술 콘텐츠를 편리하고 알뜰하게 즐길 수 있었다. 앞으로도 광주를 자주 찾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문창현 대표이사는 “시민과 관광객의 꾸준한 관심과 성원으로 회원 4만명 돌파라는 뜻깊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지역의 문화·예술·관광 자원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차별화된 콘텐츠를 발굴하고, 전남광주 관광자원의 통합적 활용과 경쟁력 강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재단은 앞으로 시즌별 기획상품과 지역 특화 관광상품을 확대하고 모바일 앱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광주아트패스를 전남광주통합시를 대표하는 핵심 스마트 관광 플랫폼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오복 기자

임방울국악제 수상자들, 일본서 국악 알린다

25일 요코하마서 판소리·농악 등 무대

임방울국악제 수상자들이 일본에서 전통국악의 멋과 흥을 선보인다.

㈔임방울국악진흥회는 오는 24-26일 일본 가나가와현에서 ‘임방울국악제 수상자 일본 공연’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주최하고 임방울국악진흥회가 주관하는 이번 공연은 광복 81주년과 한·일 국교 정상화 61주년을 맞아 양국간 문화교류와 국악의 성지 예향 광주의 위상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공연은 25일 오후 6시 요코하마 이소고 공회당에서 현지 교민과 시민 등 1천여명을 대상으로 펼쳐진다.

무대는 올해 농악일반부 대상 수상자인 호남여성농악보존회 이정우 외 5명의 풍물판굿으로 막을 올린다. 이어 제26회 대통령상 수상자인 정상희 명창의 ‘쑥대머리’, 최지선·최수진·주현선 명무의 태평무 등을 선보인다. 대미는 소고춤과 전 출연진이 함께하는 ‘동백타령’, ‘진도아리랑’으로 장식한다. /오복 기자

www.kjdaily.com
광주매일신문 구독QR
광주매일신문을 펼치면
광주·전남의 미래가 보입니다
지역의 품에서, 독자의 곁에서 늘 사랑받는 신문이 되겠습니다!!



시내지국
· 중앙지국 222-8171 · 상무지국 453-2554 · 유동지국 222-8171 · 오치지국 261-9461
· 산수지국 224-4188 · 광천지국 374-2120 · 운암지국 529-3548 · 문흥지국 261-9462
· 학운지국 673-6836 · 진월지국 676-2726 · 용봉지국 261-1503 · 일곡지국 573-3200
· 화정지국 372-9140 · 봉선지국 673-6836 · 신가지국 954-1420 · 첨단지국 971-7374
· 금호지국 376-7153 · 백운지국 673-0123 · 양산지국 574-3745 · 치평지국 371-9584
· 풍암지국 603-0311 · 두암지국 266-1920 · 하남지국 951-9954 · 수완지국 955-0451
· 노대지국 674-3581 · 농성지국 362-4102 · 운남지국 952-1687 · 광산지사 944-0993

지방지사
· 목포지사 061)270-8689 · 나주지사 061)335-0005 · 보성지사 061)852-6644 · 무안지사 061)453-3645
· 동목포지사 061)278-0740 · 광양지사 061)793-6800 · 화순지사 061)373-7795 · 함평지사 061)322-0882
· 남목포지사 061)245-3797 · 구례지사 061)782-4696 · 장흥지사 061)863-6800 · 영광지사 061)353-5133
· 신안지사 061)980-8300 · 담양지사 061)383-5566 · 강진지사 061)432-8899 · 장성지사 061)394-3636
· 순천지사 061)746-1600 · 곡성지사 061)362-5746 · 해남지사 061)535-5849 · 완도지사 061)555-0134
· 여수지사 061)651-6433 · 고흥지사 061)832-6290 · 영암지사 061)473-7151 · 진도지사 061)542-4330

▶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좌로 338번길 16(구동1-21) ▶ 대표전화:062)650-2000 ▶ 구독문의:062)650-2022